

불교, 세계종교를 만나다

교불련, 창립20주년 맞아 월정사서 국제학술회의 개최



에이몬 아담스 교수 (영국·런던대)



최일범 교수 (성균관대)



판카즈 모한 교수 (호주·시드니대)



김홍철 명예교수 (원광대)



강병조 교수 (경북대)

정부의 종교편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때, 불자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특히 고준환 교수(경기대·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의 기조강연(본지 693호 2면 보도)에 이어 강병조 교수(경북대)가 재가자의 종단운영 참여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창립 20주년을 맞아 8월 18~20일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에서 열린 '2008교수불자대회'는 200여 불자교수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월 19일 '불교와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에이몬 아담스 교수(영국, 런던대), 최일범 교수(성균관대), 판카즈 모한 교수(호주, 시드니대), 김홍철 명예교수(원광대), 강병조 교수(경북대)가 발표했다.

불교와 개신교의 만남

에이몬 아담스 교수는 '한국에서의 불자와 개신교도의 대화(Buddhist Christian Dialogue in Korea)'에서 "기본(초발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아담스 교수는 "종교간 대화는 상호 이해와 관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가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와 개신교가 적대감을 넘어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종교간 소극적 대화를 조율해 실험적·공정적 태도로 귀중한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몬 아담스 교수는 "한국이 진정한 종교다원주의 사회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 상대를 인정하고 싶은지, 변화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스 교수는 종교간 협조와 우정을 설명하며, "같은 지역 사람과 교회부터 소통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불교와 유교의 만남

'유교와 불교와의 대화'를 발표한 최일범 교수(성균관대)는 "종교간 대화는 반드시 서로 인정하고 하나가 돼 마칠 필요가 없다"며,

"포용과 갈등 여부보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인가가 중요한 문제"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불교와 유교의 대화를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 등을 인용한 배타적 관점 ▲우란분회(백중) 등을 예로 든 포용의 관점 ▲최치원의 삼교관을 통해 배타와 포용을 아우른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최일범 교수는 "유교와 불교는 동아시아와 인도라는 지역적 차이로 다른 점이 많았지만 '덕성'과 '불성'을 내세워 인간의 자기완성이 종교의 본질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유교와 불교가 보여준 지적 전통이 오늘날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인류를 위한 종교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진단했다.

불교와 힌두교의 만남

판카즈 모한 교수는 '불교와 힌두교의 대화(Hindu-Buddhist Dialogue through Early and Medieval History)'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한 기원전 6세기부터 이슬람 침공 등으로 생명력을 잃기까지를 조명했다.

특히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한 것에 대해 호사가 순지 교수(일본, 레이타쿠대)의 화설을 정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호사가 교수는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번역한 <예 인도에서 불교

는 멸망했는가>(한글을 더 펴에서 이슬람 사료인 <차츠나마>를 인용해, "불교가 이슬람교에게 '안티 힌두교' 역할을 넘겼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판카즈 모한 교수는 "이슬람교는 힌두교 못지않게 불교를 공격했다. 불교인들이 이슬람교를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차츠나마>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인도를 침략한) 이슬람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일본감정기 일본학자들이 쓴 한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오류"라 지적했다.

이어 "근본진리인 불법의 차원에서 보면 불교와 원불교는 완전 일치한다"며, "원불교의 법신불인 원상 가르침은 불교의 법신불을 일원상이라 한 것"이라 말했다. 김홍철 명예교수는 "천도교·증산도·원불교는 유·불·선 세 종교를 부정하면서도 근본이념과 사상을 끌어들이 교리와 사상체계를 형성했다. 다만 천도교는 유교를, 증산도는 도교(仙)를, 원불교는 불교를 주제로 삼은 것이 다를 뿐"이라 정리했다.

불교와 신종교의 만남

김홍철 명예교수(원광대)는 '불교와 신종교의 대화'에서 천도교·증산도·원불교 등 한국 신종교

에 내포된 불교적 요소와 불교와의 관계를 고찰했다.

김 명예교수는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가 불교 사찰에서 기도생활 하고, 해원 최시형도 불교식 수행한 것을 예로, "동학이 불교를 부정해도 가르침에는 불교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고 분석했다. 증산도와 관련해서는 "증산도를 창종한 강증산도 불교를 유교보다 우위에 뒀고, 증산이 세상을 떠난 후 증산을 미륵불로 숭배하는 교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진리인 불법의 차원에서 보면 불교와 원불교는 완전 일치한다"며, "원불교의 법신불인 원상 가르침은 불교의 법신불을 일원상이라 한 것"이라 말했다.

김홍철 명예교수는 "천도교·증산도·원불교는 유·불·선 세 종교를 부정하면서도 근본이념과 사상을 끌어들이 교리와 사상체계를 형성했다. 다만 천도교는 유교를, 증산도는 도교(仙)를, 원불교는 불교를 주제로 삼은 것이 다를 뿐"이라 정리했다.

개혁 절실한 한국불교

강병조 교수(경북대)는 주제 발표 '한국불교, 종교개혁이 필요한가'에서 '한국불교 개혁'을 주장했다. 지난해 교수불자대회에서는 성철 스님의 비과학적 설법을 비판해 화제를 모았던 강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불교 승가 전체에 문

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강 교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인용해 "한국불자의 상당수는 손사람, 고령의 할머니나 아주머니"라며, 승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스님들이 막연한 설법으로 신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 할머니, 아주머니만 절을 찾는다"고 비판한 그는 승가개혁을 한국불교 개혁의 핵심으로 역설했다. 강병조 교수는 "스님들 사이의 문중 파벌을 없애야한다" "종단 내 문제를 사법부에 고소하는 승려는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 전반에 대해 "내세와 윤회를 믿으려만 힌두교와,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영험을 중시하려면 기독교와, 점치고 부적 팔려면 사머니즘과 통폐합하라"고 한국불교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강 교수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종단운영, 과학·어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승가교육제도 개선 등을 역설했다.

한편 국제학술회의에 이어 19일에는 ▲정치·경제 문화와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사회·윤리·환경문제와 불교로 나뉜 3개 분과에서 미래불교를 위한 학술적 담론이 펼쳐졌다.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바라는 불자교수들의 결의문도 채택됐다. 불자교수들의 정성 어린 목소리가 불교계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oetana@buddhapia.com

“화엄경문답 ‘대승사론현의기’ 한국 문헌”

최연식 교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서 발표



'한국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굴'을 주제로 8월 20일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최연식 교수는 '일전문헌과 불교사상의 재인식'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또는 일본 문헌으로 알려졌던 <화엄경문답> <대승사론현의기>는 한국 고대 문헌이며, 원효 스님 등에 의한 한국 문헌으로 알려진 <유심안락도> <대승기신론 동이략집>은 8세기 후반 일본 승려가 전술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8월 20일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한국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굴'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서 최연식 교수(목포대)가 주제발표 '일전문헌과 한국불교사상의 재인식'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최 교수는 "다양한 사상 가운데 후대에는 주류만이 남게 된다"며, "(잘못 알려진) 문헌들이 '자기'가 아닌 '남'으로 존재해 오면서, 없어지지 않고 현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진심직설>과 <견나표하일승수

행자비밀의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연식 교수는 "신라말 화엄학자의 저술인 <견나표하일승수행자비밀의기>는 중국 화엄종의 대표문헌으로 선양됐었다. 정체가 탐로 난 고려에서는 멸실됐으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에서는 석경으로 잘 보존됐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진심직설"도 우연히 저술의 저술로 오해받아 현존할 수 있었다"며, "돈황석굴서 발견된 문헌들이 남북조와 수당시대 불교사를 다시 쓰게 한 것처럼 일전(逸傳) 문헌들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불교사상을 재인식하게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김천학 교수(금강대 HK)는 '백제 도장의 <성실론소> 일문에 대해서'를 통해 백제 승려 도장(道藏)의 저서로만 알려졌던 <성실론소>의 내용 등을 최초로 발표해 주목받았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따라 바뀐다

문화재청,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통일성 없이 제각각이었던 문화재안내판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8월 21일,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6년부터 궁궐, 사찰 등 주요 유형별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정리해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안내판 개

선시 고려사학, 개선 기본원칙,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의 주요 프로세스 등을 포함해 각 지자체의 문화재안내판 개선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실무지침 보급과 함께 10월 중 전문가들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중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범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불상·석탑·석등·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등석: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반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 산 수입 물과는 차이가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일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월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장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시)물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